



황다연 작 'nature2'

네이버 '크리에이터 인 광주' 가을까지 릴레이 전시·공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개관 앞두고 8월 15일까지 황다연 작가 전시회 8월 7일 피크뮤직홀 '온 스테이지' 가을방학·랄라스윗·스왈루피 출연



'스왈루피'

네이버가 오는 9월 초 광주에 문을 여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호남권 중소상공인들과 창작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옛 국민은행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문을 여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서울, 부산에 이은 세번째 공간으로 먹거리가 풍부하고 공예 등 예술적 전통이 깊은 호남권 특색을 활용, 푸드 및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스톱비즈니스와 창작자에 특화된 스튜디오 구성과 성장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네이버문화재단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 오픈을 앞두고 실력 있는 창작자들의 전시와 공연인 '크리에이터 시리즈 in 광주'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 프로젝트 꽃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재단은 첫 번째 기획전, 서울에서 열렸던 '그라폴리오 스토리전 vol.2'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황다연 작가의 전시를 오는 8월 15일까지 광주 동명동 카페 스트리트에서 열고

있다. 황 작가의 작품은 감각적인 색감의 파라다이스 그림으로 도심 속 여행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두번째 프로그램은 네이버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인 '온 스테이지 공연'이다. 오는 8월 7일 오후 8시 광주 사직공원에 위치한 광주 피크뮤직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온 스테이지'의 첫 광주 공연으로 서정적인 음악의 '가을방학'과 '랄라스윗'이 공연을 펼친다. 또 광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뮤지션 '스왈루피'가 오프닝 무대를 장식, 지역 창작자와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온스테이지 공연의 티켓 판매 수익금은 창작 활동 지원의 의미로 전액 뮤지션에게 환원된다. 티켓은 26일부터 예매(https://naver_diary.blog.me)할 수 있다. S석 1만 원, A석 7000원. 그밖에 재단은 오는 8월 17일부터 '파트너스퀘어 광주' 아뜰리에 입주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개최하는 등 가을까지 총 5차례의 '크리에이터 in 광주' 릴레이 전시·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광주 응원 전시와 공연을 통해 파트너스퀘어 광주가 스톱비즈니스, 지역 창작자, 나아가 지역 사회와 다양하게 협업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장인숙 디지털 아트쇼

8월12일까지 순천 창작예술촌

장인숙 디지털 아트쇼가 오는 8월 12일까지 순천 창작예술촌 1호에서 열린다.

유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정작가는 작품 활동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던 중 20여년 전부터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장 작가는 "한 편의 작품은 같은 소재의 그림 7장 이상과 그 주제에 맞는 음악과 효과가 어우러져 완성된다"며 "전 시관을 찾는 관람자는 오감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 작품에서 활용한 그림을 전시하고, 그 그림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영상그림을 TV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또 디지털아트를 이용해 제작된 다양한 소품(가방, 등받이) 등을 전시하며 밤 시간에는 창작예술촌 외벽에 도시의 재생 과정을 담은 프로젝션 맵핑을 선보인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장 작가는 밴쿠버, 파리, 뉴욕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으며 순천으로 내려온 후 지난해까지 순천대 영상디자인



'향수 1'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편 순천시 도심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순천창작소 1호는 당초 순천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의 창작스튜디오로 활용됐으나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 순천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시작품 공모를 진행했고 선정된 6개 단체와 개인이 순차적으로 전시를 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원중 달거리 7월 공연

전라도 정도 1천년, 약무호남을 노래하다

도드리 전남지부 8월 4일 곡성 도립사 국악공연

이순신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섬진강 아리랑 II - 전라도 정도 1천년, 약무호남을 노래하다' 공연이 오는 8월 4일 오후 5시 곡성 도립사 오토캠핑장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창작국악단 도드리 전남지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곡성군, 전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한다. 이번 공연은 전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남도르네상스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전남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퓨전과 창작, 그리고 대중가요와 전통음악, 무용을 넘나드는 공연으로도 도드리만의 독창적이고 신명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국악관현악곡 '섬진강', '남도풍경' (2018년 창작 위촉곡), 창작무용곡 '풍류 아리랑', 국악가요 '내사랑섬진강', '천년 사랑' (2018년 창작 위촉곡), '심청별곡' 등 시대를 넘나드는 우리음악이 공연장을 가득채운다. 또 도드리와 프롤로그가 '강물처럼', '작은새', '다시합시다' 등을 선보이며 '편지', '아침이슬', '하얀바비' 등 귀에 익은 노래로 관객과 호흡을 맞춰 함께 부를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지역 젊은 뮤지션들 무대

김원중의 달거리 '2018 땀 만드는 공연' 7월 공연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99번째 진행되는 이달의 공연 주제는 '모타페'다. '모타페'는 최근 화순군 수만리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로 기존의 형식을 배제하고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거리는 이러한 '모타페'를 주제로 '바닥프로젝트', '우물안개구리', '루트머지' 등 지역의 젊은 뮤지션들이 출연해 낭만과 자유, 열정으로 무대를 꾸민다. 초대손님으로는 포크소녀단 '그랜드',

여성듀오 '원보틀', 포크듀오 '김과리'가 출연한다. 가수 김원중씨가 지난 2003년부터 열고 있는 '땀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는 지역민들이 직접 평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 후원금과 관람객들이 낸 입장료는 '북녘어린이영양방공장사업본부'로 보내져 북녘 어린이들의 허기를 달래는 데 쓰인다. 내달 27일에는 달거리 100회 공연이 준비되었으며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에 열린다. 문의 010-3670-580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강진 청자요지 60년 만에 재발굴 조사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재발굴 조사가 올 하반기에 시작된다. 첫 조사 이후 60년 만이다. 강진군은 1963년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됐고 1994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된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고려청자 요지 재발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려청자박물관 주변 민가 이전 부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자박물관 부지는 1964~1970년에 국립중앙

박물관이 발굴조사를 했으며, 2015년에 보고서가 출간됐다. 김국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26일 "청자축제 이후에 시작될 박물관 주변 가마터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고려청자 연구에 더욱 중요한 학술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진군은 '고려청자 하먼 강진군'이라는 명제를 밝혀줄 학술심포지엄을 오는 30일 오후에 개최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폭로 최영미 시인 등에 손배소

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운 부장 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시인 역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니다", "누군가로부터 소

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분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